

# “만화는 21세기의 새로운 서사언어다”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 펴낸 성완경 교수



성완경 교수(57, 인하대 미술교육과)가 세계 만화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30여명의 만화가들을 가려 뽑아, 그들의 생애와 작품세계, 그리고 대표작을 소개한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를 펴냈다. 이 책은 특히 그동안 편견의 틀에 갇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만화를 20세기 최후의 종합예술이자, 21세기 멀티미디어형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장르로 평가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책으로 펼쳐보는 세계만화 갤러리

성교수는 이 책이 “만화의 매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입문서”이자, “세계만화의 보물섬을 찾기 위한 항해의 길잡이”라고 말한다. 길잡이를 자처하는 만큼 읽기에 어렵지 않다. 470여컷에 달하는 만화작품과 관련 사진 등 볼거리도 풍성하고, 거기에 성교수의 입심 좋은 글솜씨가 어우러졌다.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만화의 세계’에서는 만화의 정의부터 만화의 형식, 오늘날의 문화지형도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위상 등을 살폈다. ‘세계만화사’는 만화사에 획을 그은 주요 작품들을 연대별로 소개한 ‘그림으로 보는 세계만화사’다. 여기서는 만화의 기원부터 1900년대 초기의 걸작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의 스펙트럼으로 뻗어나가는 현대만화에 이르기까지 만화의 역사적 흐름을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책의 몸체라 할 수 있는 ‘세계의 만화가’는 본격만화

이 책은 세계만화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괄하고, 세계만화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소개한 만화길라잡이다. 성교수는 이 책에서 만화를 ‘만화방’의 좁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낸다. 특히 만화를 21세기 멀티미디어형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장르로 평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 효시가 된 아웃코트의 <엘로 키드>, 20세기 모험만화의 고전인 에르제의 <땡땡의 모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해 풀리처상을 받은 슈피겔만의 <쥐> 등 세계만화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만화가 30여명의 대표작과 작품세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성교수가 만화의 매력에 푹 빠져든 건 대학원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프랑스문화원 영화담당 직원으로 일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붙어권 만화와 만났다. 그때부터 시작된 만화사랑이 지금까지 식지 않고 있으니 만화에 대한 성교수의 남다른 사랑은 올해로 꼭 30년이 된다. 이 책은 성교수가 서른해 동안 어르고 보듬어 세상에 내보낸 귀한 자식과도 같은 셈이다.

“굳이 ‘제9의 예술’이라 부르지 않아도 이미 만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고, 중요한 예술장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화는 여전히 하위문화, 값싼 상업문화라는 편견의 그늘에 가려 있죠. 만화가 제자리를 찾고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만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만화는 시각문화와 구비문화의 절묘한 결합체

만화에 대한 성교수의 관심은 1972년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본격화된다. 그 시절 프랑스에서는 ‘68학생혁명’ 이후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만화가 기존의 인습적·상업적 굴레를 벗어나 저항과 고발을 주조로 하는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으로 거듭나고, 젊은이들은 지적 전위예술에 주목했다. 뛰어난 작가들도 속출해 ‘저자만화’가 황금기를 누리던 시기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여파로 그가 수학했던 파리8대학에선 전례 없이 만화강의가 개설되기도 했다. 그때부터 성교수는 만화가 뽑아내는 다양한 색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계몽주의 시대 이래 말과 그림의 결합은 지식의 전달이나 기술의 습득 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죠. 그림과 말의 상호 결합이 낳는 힘의 핵심은 ‘사로잡는 것’과 ‘잘 알게 해주는 것’에 있는데, ‘보여주며 말하기’는 모든 예술, 나아가 모든 지식의 가장 강력하

면서도 우월한 형태입니다.”

만화는 의미가 담긴 그림, 스토리가 있는 연속된 그림으로서 문자와 그림, 이야기와 그림이 상승작용해 독자를 사로잡는다. 또한 인쇄된 만화는 시민사회 내지 대중사회로 특징지워지는 근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성교수는 만화의 매력이 “효과적인 시각문화와 이야기로서의 구비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한 데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혼합문화, 혼성문화의 성격을 띠는데,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상상력은 재미와 더불어 만화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

“만화의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종횡무진 그리고 예측불허, 그것이 만화의 상상력이죠. 또 만화는 재미와 풍자가 결합된 장르로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대중과 민감하게 교류해왔죠. 프랑스에는 ‘만화가 먼저 원심운동을 하면 철학이 나중에 그것을 중심으로 추스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만화는 주류의 저 바깥쪽을 더듬는, 문예적·철학적 아방가르드기도 합니다.”

성교수는 만화의 최고 미덕으로 독자와의 상호대화성을 꼽는다. 만화가 지난 한세기를 거치면서 20세기 대중문화의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잡은 것도 포괄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 만화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필요해

“지난 세기가 문자 중심적이었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영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합리주의로 대변되는 문자의 독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우리는 이미지의 다양한 변주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요. 만화는 이처럼 변화된 환경 속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존재할 수 있죠. 이제 문자

나 이미지나가 아니라 그 둘이 만나서 만들어내

는 새로운 서사, 곧 ‘새로운 언어’에 주

목해야 합니다. 만화에 대한 인

문학적 연구가 필요한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

습니다.”

성교수는 특히 만화

의 서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만화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비주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곧

걸음으로만 흐르는 영상이미지

가 아니라 만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독자의 상상력과 만나야

된다는 말이다. 그는 이것을

“넓고도 오랜 솜씨이자, 이야기

의 새로운 솜씨”라고 말한다.



생각의나무/85번형/296면/12,000원

“우리나라는 만화시장의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신세대를 비롯해 넓게는 40대 후반까지 만화에 대한 향수를 가진 세대들이죠. 하지만 출판만화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시장 구조도 문제구요. 대학에서도 만화교육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현재 전 문대와 일반대학을 포함해 전국에 30여개 정도의 만화관련 학과가 설립돼 있는데, 이런 활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성교수는 애니메이션과 출판만화를 혼동하는 듯한 정부정책도 문제라고 본다. 그런 정책적 혼선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지만, 출판만화시장을 더욱 영세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말한다. 만화를 ‘만화방’의 좁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낼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교육적 측면에서 만화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문화적 측면에서 박물관 설립과 전시회도 개최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 책의 중심부분인 ‘세계의 만화가’는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 《뉴스플러스》에 연재했던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 총 25회 가운데 22회분을 옮겨 실은 것이다. 지면의 제한 때문에 다 신지 못했던 작가들이 있어 아쉽다고 말하는 성교수는 지금 후속편을 준비중이다.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2》(가제)가 될 그 책은 여기서 다루지 못한 최근 작가들을 중심으로 만화 속 키워드 분석 등 좀더 재밌고 새로운 글쓰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박순근 기자

#### 멈출 줄 모르는 열정

성교수는 현재 2002년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도 미국출장 중이었다. 귀국한 이튿날 인터뷰했는데, 그날도 비엔날레 준비 때문에 광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인터뷰에 응해줬다. 감색 수트에 역시 감색 폴로티셔츠를 받쳐입은 그는 만화에 대한 열정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다가 갑자기 거침없는 비판으로 일갈할 때는 가끔씩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기도 했다.

이 책에 소개된 470여 컷에 달하는 만화작품과 매체 사진 자료들은 모두 성교수가 소장한 책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이 자료들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모아왔는데, 워낙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한꺼번에 2백여권을 구입한 적도 있었다.

성교수는 본래 미술전공자다. 하지만 요즘은 만화강의에도 열의를 쏟고 있다. 인화대에서 ‘만화예술론’을,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에서 ‘만화읽기’와 ‘만화기호학’ ‘애니메이션과 글쓰기’ 등을 강의한다. 성교수는 무엇보다 이 책이 만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좋은 만화, 좋은 작품을 가려볼 줄 아는 눈을 길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렇듯 강의는 물론 서울과 광주로, 또 잦은 해외출장의 와중에도 그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만화이론을 소개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벨기에의 만화이론가 베누아 페터스의 《칸, 페이지, 이야기(Cage, Planche, Récit)》를 번역 중이다. 이 책은 만화를 구성하는 세 요소를 통해 만화 속 의미작용을 파헤친 만화기호학이다. 또 프랑스 ‘알굴렘 만화페스티벌’에 한국만화특별전을 요청받아 그 밑그림을 구상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어 갑년을 바라보는 나이를 무색케한다.